





# 향기로운 예물

한금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장학 기업 085-056206-04-054(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 **십일조한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윤희진 이필레 김윤주 최유경 김지한(유소정) 박권재(송명숙) 방석태(차옥자) 백성원(안지영) 석애자(전휘부) 석형기(이희순B) 성미영(박영식) 송부현(김영진) 오귀숙 오영순 유호근(손명화) 윤규리 윤예원 이기자 이난수(방원식) 이상희 이한웅(김순옥) 장명원 장예준 정옥순 최순재 최정규(김미영)

☞ **선교한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이필레 김기백(배숙자) 박은숙(정양학) 백성원(안지영) 석형기(이희순B) 송부현(김영진) 오영순 오택현 윤영준(박진숙) 이기자 이한웅(김순옥) 이향교 장명원 정옥순 조규래 최순재 중국선교비루디아 새롭애니메이션

☞ **감사한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영성 곽정순 김경엽(손정아) 김규찬(최효자) 김미영(최정규) 김병율(이영숙) 김정연B 김중익(박애순) 김한나 민옥희(윤승한) 박복순 박순자 박종삼(이명원) 백남실 서재희 석형기(이희순B) 송다해 송백현 송순량 송형기(김현숙) 신홍찬 염영분(전세력) 오현일 유은자 윤숙 이기자 이명희 이상희 이월숙 이유진 이종문 이진우 이태일(송백현) 이필레 이향교 이희순B 임윤정 전계자 전순봉 정계숙 정기성(심순옥) 정삼래 차옥자 채명엽 채종민 최귀남 최상걸 최성현 최정규(김미영) 최효자(김규찬) 홍유정 무명

☞ **일천번제한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준 김아이라 김이안 김종인 김주원 김준구 맹지혜 민옥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승현 박영식 박준홍 방복순 서로이 서로하 양영욱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상이 이상희 이소은 이승애 이아론 이유진 임윤정 임지훈 정서연 정양학 주성탁 최대현 최봉순 최선미 최효자 홍유정 무명

☞ **월정한금**

## 주간 성경연구

16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마가복음 16장 1절 ~ 10절			
월요일	민수기 14장 1절 ~ 10절	목요일	민수기 14장 39절 ~ 45절	
화요일	민수기 14장 11절 ~ 25절	금요일	민수기 15장 1절 ~ 21절	
수요일	민수기 14장 26절 ~ 38절	토요일	민수기 15장 22절 ~ 31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시무장로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상걸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전 도 사			
	원로전도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윤주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시온 : 이난수	
			오르간	심해윤
			피아노	지애빈 김민지 김미희 최선미 이상희 윤예진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선교사	슬리스트			이수경 이재아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옥 미국 : 김다니엘 미국 : 최옥희	이집트 : 김신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흥기	태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찰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5.04.13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마가복음 14장 12~26절 설교: 이진우 목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특별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의 죽음이 뜻하는 바를 제자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성찬 의식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1.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 용서를 받음

-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건은 죄의 노예가 된 모든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잔혹한 억압 아래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모든 초태생을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의 모든 초태생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 담긴 새로운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애굽의 정치적, 군사적 억압보다 더 강력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죽음의 권세에 굴복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그 강력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유월절 빵이 당신의 몸이고, 포도주가 당신의 흘리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심으로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죄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죄 사함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성찬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2.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그것이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것이 죄인들을 위해 흘리시는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지 생생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희생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희생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영악하게 살면서 손해 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보여 주신 자기희생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 정연희의 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실제 주인공 맹의순은 조선신학교를 다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중 거제리 포로수용소에 갇혔고, 그곳에서 중공군 포로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을 사리지 않고 포로들을 돌보며 헌신적으로 봉사했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병을 얻어 27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으나 그의 희생으로 많은 중공군 포로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거룩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체와 이웃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마음다해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이웃과 나누며 적대적인 사람까지 사랑할 것을 새롭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SINCE 1975

No. 51 - 16

2025. 04. 20.

##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박국 3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 Yee,	진 Jin	우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